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고교 사설 모의고사 단체 응시에 대한 실태보도(2021.5.13.)**

공교육 정상화 위해 금지했던 사설 모의고사, 일부 고교에서 슬며시 고개들어...

- ▲ 고교에서는 수능 적응력과 진로·진학자료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원 수능모의평가(연 2회)와 더불어 지난 2002년부터 사설 모의고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연 4회)를 정례적으로 치르고 있음.
- ▲ 그런데 일부 지역 고교에서는 여전히 대형 사교육 기관이 주관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정규 수업시간에 단체 응시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음.
- ▲ 이에 대해 다수의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단위학교 차원에서 시행 여부를 자체 판단할 사안으로 보고,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을 하고있지 않고 있음.
- ▲ 사설모의고사 시행 고교들은 통상 입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수능대비 학습 점검 및 심리적 적응, 면학 분위기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음.
- ▲ 그러나 고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은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과도한 시험 횟수로 평가부담 및 교육비 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며 △재학생 성적 등 개인정보가 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업체의 상품 마케팅 영업에 활용될 수 있어 인강·학원 등 파생 사교육 소비를 조장할 수 있음.
- ▲ 공교육의 진학지도 기초자료는 연간 6회 치르는 교육청과 평가원의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함. 사설 모의고사는 공적 문항검증 절차가 부재하고 응시 표본이 적어 성적통계 신뢰도도 낮음. 그럼에도 고교에서 별도의 사설 모의고사를 단체로 구입하게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실시하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처사임.
- ▲ 교육 당국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단위학교 자율 시행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 및 방과후 실시를 전면 금지시켜야 함. 더불어 사설 모의고사 없이도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만을 통해 충분히 수능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교육 모의고사 문항 출제에 만전을 기해야 함.

고교에서는 수능 적응력과 진로·진학자료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평가원 수능모의평가(연 2회)와 더불어 2002년부터 사설 모의고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전국 연합학력평가(연 4회)를 정례적으로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고3의 경우, 11월 수능을 대비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연 4회)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수능모의평가(연 2회)를 응시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보는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정기고사(연 4회)까지 고려하면, 고3은 정규 학교교육을 통해 11회에 달하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 1] 2021학년도 고교 전국단위 모의고사 일정

'2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행 일정 및 주관교육청				
월	학년별 시행 일정			
	1·2학년		3학년	
3월	25(목)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 광주, 전북 1학년 참여하지 않음)	25(목)	서울특별시교육청
4월			14(수)	경기도교육청
5월				
6월	3(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 참여하지 않음)	3(목)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7월			7(수)	인천광역시교육청
8월				
9월	1(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 참여하지 않음)	1(수)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10월			12(화)	서울특별시교육청
11월	24(수)	경기도교육청	18(목)	대학수학능력시험
12월				
횟수	학년별 4회		총 6회	

(출처: 전라북도교육청 블로그)

이처럼 학생들은 사실상 1년 내내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일부 지역 고교는 대형 사교육 기관에서 주관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정규 수업시간에 단체 응시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2020년 이래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정황을 발견한 고교만해도 30개교가 넘는데, 전수조사가 아닌 자체조사 결과임을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보다 많은 고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 1] 사설모의고사 실시 고교(2020년~)

※ 전수 조사 아님

시행날짜	지역	설립유형	학교명	학년
2020.5.21.	충북	사립	운호고등학교	3학년
2020.5.28. 2020.11.18	충북	공립	청원고등학교	3학년
2020.8.13. 2020.11.18	강원	공립	홍성고등학교	3학년
2020.8.13.	경남	공립	진양고등학교	3학년
2020.8. 2021.5.25	충북	공립	청주여자고등학교	3학년
2020.8.13 2021.3.16	충북	공립	봉명고등학교	3학년
2020.9. 2020.10. 2020.11(2회)	충북	사립	충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2020.10.29. 2021.3.16.	충북	사립	충주중산고등학교	1,2학년 3학년
2020.8.-11.(총3회)	충남	사립	아산고등학교	3학년
2020.11.	충남	공립	서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2020.11.10. 2020.11.18.	충북	공립	옥천고등학교	3학년
2020.11.18. 2020.11.24. 2021.5.18. 2021.10.12.	충북	국립	한국교원대학교부설고등학교	3학년
2020.10.7. 2020.11.18	충북	국립	충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학년
2020.10 2020.11	충북	사립	세광고등학교	3학년
2020.9.2. 2020.11.5. 2020.11.18. 2020.11.23	충남	사립	복자여자고등학교	3학년
2020.11 2021.5.18.	충남	사립	예산고등학교	3학년 2학년
2021.3.16.	경남	공립	김해경원고등학교	3학년
2021.3.16.	경남	공립	김해여자고등학교	3학년
2021.3.16.	충북	공립	주성고등학교	3학년
2021.4.14. 2021.7.7. 2021.10.12	충북	공립	오송고등학교	3학년
2021.5.7.	서울	사립	서울강서고등학교	3학년
2021.5.18. 2021.10.12	제주	공립	제주중앙여고	2학년
2021.5.18. 2021.10.12	제주	사립	제주오현고	2학년
2021.5.18.	경북	사립	문명고등학교	2학년
2021.5.18. 2021.8.24. 2021.10.12/27. 2021.11.9	경북	사립	근화여자고등학교	1,2,3학년
2021.5.18	부산	부산	양정고등학교	3학년
2021.5.19	대전	사립	동방고등학교	3학년
2021.5.19	대전	공립	충남고등학교	3학년
2021.5.21	인천	사립	대건고등학교	3학년
2021.5.25. 2021.8.20. 2021.10.27	경남	공립	범어고등학교	3학년
2021.5.25. 2021.8.24.	경남	공립	창원대암고등학교	3학년
2021.5.18. 2021.8.20. 2021.10.27.	경남	사립	창원성민고등학교	3학년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하는 학교 중 일부는 학교 비용을 지원한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1회당 15,000 원 가량의 비용을 수익자부담경비로 처리하여 스쿨뱅킹/CMS를 통해 징수하고 있으며,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통신문에서 응시 신청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고 신청하지 않을 시 사유를 적도록 한 학교가 있는가하면, 별도의 응시 희망 여부를 묻지 않고 실시 사실과 비용만 일방적으로 고지하여 전원 응시시킨 것으로 보이는 학교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가정통신문에서 사설모의고사임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은 채, 학교 이름(00고)을 붙인 명의(ex.00모의고사,00고고사비)로 출금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학부모에게는 공교육 모의고사의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오인될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림 2] 사설모의고사 실시 고교의 가정통신문

2020학년도는 진학을 통해 그 동안 노력한 결과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간 전국 연합 평가를 통해 모의 수능을 준비해 왔지만, 이제 재수생을 포함한 많은 수능 응시생과 실력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에 2020학년도에 4회에 걸쳐 모의고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첫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객관적인 위치를 점검하고, 학업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의고사 시행 개요 -

1. 실시 일자: 2020. 2학기 총 4회 (9월 1회, 10월 1회, 11월 2회)
2. 주관 기관: 대성 학력 평가 연구소 외 2곳
3. 고사 비용: 15,000원
4. 이체 기간: 2020. 사설모의고사 실시 후 2일간

2020. 8.

여자고등학교장(직인생략)

2020학년도 11월 모의고사비 스쿨뱅킹 안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에 편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0학년도 11월 모의고사비를 스쿨뱅킹을 통하여 이체하고자 하오니, 개인별 신청하신 스쿨뱅킹 통장잔액을 확인하시어 미납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쿨뱅킹 기간 : 2020년 11월 25일 ~ 2020년 11월 26일
(신용카드 요청일 : 2020년 11월 25일)
- 납부금액 및 인출내역

구분	학년	금액	비고
고교사비	3학년	24,000원 (12,000원*2회)	2020.11.18.(수)실시 2020.11.24.(화)실시 ※모의고사 2회 실시

- 이체 방법 : 학교 스쿨뱅킹

< 기타 안내 >
○ 가정통신문 : 학교홈페이지-알림마당 메뉴 게시

2020. 11. .

2021학년도 2학년 대외(사설)기관 모의고사 응시 신청서

제 2학년 ()반 ()번 이듬 ()

신청	신청 안함	비고

※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비교란에 간략하게 사유를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2021. 4. .

학 생 : Ⓢ 또는 서명
학 부 모 : Ⓢ 또는 서명

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문제는 교육 당국에서 고교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해 문제의식이 없어 별도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교육걱정이 유선 확인한 결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경기교육청은 공문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교내 사설 모의고사 실시에 대한 금지 방침을 내리고 있는 반면, 그밖에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단위 학교에서 재량 실시할 사안으로 보고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림 3] 서울시교육청 사설모의고사 금지 공문(2021년 4월)

제목 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 금지 안내

1. 관련: 사설 모의고사 금지 대책(교육감 결재, 2010.10.13.), 중등교육과-15251(2021.4.13.)
2.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생의 평가 부담 경감과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하고 있으니, 학교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목적
 -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 2)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따른 민원 및 각종 부조리 발생 차단
 - 나. 시행 시기
 - 1)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1,2학년: 2010년 10월부터 시행 중
 - 2) 고등학교 3학년: 2011년 3월부터 시행 중
 - 다. 금지 내용
 - 1) 대상: 사설 시험업체에서 출제를 주관하여 실시한 모의고사 등의 시험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제외)
 - 2) 방침
 - 정규 교육 과정(정규 수업 시간) 중 사설 모의고사 실시 금지
 - 학생이 방과후, 휴일 등의 시간에 개인별로 응시할 때 학교 관여 금지(교시별 타동 실시, 영어듣기평가 방송, 감독교사 배치 등 금지)
 - 학생, 학부모 등이 응시 희망 학생,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수합하여 집단 응시할 때 학교 시설 대여 금지 등
- 3) 위반 학교에 대한 조치
 - 1차 조치
 - 학교: 사안보고서 제출
 - 교육청(교육지원청): 해당 학교 특별장학 실시
 - 2차 조치
 - 특별장학 이후 사설 모의고사 참여 학교 대상
 - 1차 조치 외 추가로 학사 운영 전반 감사 실시
 - 형·재정적 조치(공모 배제, 목적사업비 등 예산 교부 제한 등)
- 라. 사설 모의고사 신고 센터
 - 1) 분청 소속 학교: 분청 중등교육과(☎3999-447)
 - 2)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해당 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 마. 교육지원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 여부 파악 및 관리 철저. 끝.

사설모의고사를 시행하는 고교들은 통상 입시지도를 위한 기초자료 축적, 수능대비 학습 점검 및 심리적 적응, 면학 분위기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보니, 사설 모의고사 주관 업체는 학교 영업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학교 단체응시 접수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안내하고 있을 정도로 학교 대상 모의고사 판매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그림 4] 사설 모의고사 학교 단체응시 신청 안내



(출처: 이투스교육 홈페이지)

그러나 고교에서 평가원 모의평거나 교육청 모의고사 이외에 사설 모의고사를 별도로 치르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정규 수업시간에 일괄 사설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하는 경우 당초 교육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청자에 한해 치르는 학교 가운데 그 어느 곳에서도 비응시자에게 별도의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지, 응시자의 수업 결손은 어떻게 보충할지에 대한 안내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도하게 잦은 평가 부담 및 시험비용 부담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입시 준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공교육의 진학지도 기초자료는 연간 6회 치르는 교육청과 평가원의 전국 모의고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며, 응시 학생이 많아 성적통계 신뢰도도 사설 모의고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재수생까지 치르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6월에 처음 치러지는 것은 재학생들의 수능 대비 정규 학교진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재수학원 재원생들이 다수 응시하는 사설 모의고사를 고교 재학생들이 치르게 되면 미처 진도를 끝내지 못한 채 일찍이 좌절감만 경험할 가능성이 큼니다. 사설 모의고사 응시가 단지 시험 횟수를 늘리는 것 이상의 수능 대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욱이 사설 모의고사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의 난이도와 범위에 적합한지에 대한 공적인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만 가중시킬 뿐, 원활한 수능 대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고교가 이러한 점을 몰각한 채 학교가 나서서 공교육 모의고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사설 모의고사를 찾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재학생의 성적 등 개인정보가 사설모의고사를 주관하는 사교육 업체의 상품 마케팅 영업에 활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 및 사교육 소비를 조장하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교에서 실시하는 사설모의고사는 전국단위 학원 지점을 보유하거나 인강 사업을 하는 대형 사교육 업체

들이 과점하고 있어 인강·학원 등 과생 상품 마케팅이 용이한 구조입니다. 한 사설모의고사 홈페이지에는 사이트 회원의 개인정보가 성적 처리와 더불어 각종 상품 마케팅에 활용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사설모의고사 시행을 통해 재학생들에게 주관 업체의 인강, 교재, 컨설팅, 학원 등 사교육 상품 마케팅에 노출된다면, 학교가 나서서 사교육을 알선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 5] 사설모의고사 업체의 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마케팅 활용 내용

5. 개인정보의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 방침 제2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제공에 동의한 경우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회원 학습 상담, 학습관리, 성적 처리 및 상품 마케팅 영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성전산(주), 대성교육출판(주), (주)디지털대성
 - 개인정보 이용목적 : 학습 상담 및 관리, 성적 처리, 입시 정보 제공, 학습 상품 소개 등 마케팅 영업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아이디, 학년, 학교,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간 만료일까지
- ▶ 입시정보 제공, 입시상담 및 학원 마케팅 영업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성학원(노량진), 강남대성학원, 강남대성학원인문별관, 강남대성학원자연별관, 강남대성학원(송파), 강남대성기숙학원(본관), 강남대성기숙학원(의대관), 부산대성학원, 강남대성단과·논술학원, 강대마이맥학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대학 진학 상담, 입시 상담, 학원 마케팅 영업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아이디,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학교, 학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기간 만료일까지

(출처: 대성학력개발연구소 홈페이지)

이러한 점에서 교육 당국이 학교 내 사설 모의고사 시행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학교자치 사안으로 보는 것은 교육자치의 참된 취지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자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학교자치의 참된 취지는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학교교육 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지,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는 학교 현장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손놓고 방관하는 소극적 의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올해 대입부터는 가뜩이나 정시 비율이 확대되면서 학교 바깥에서도 사설 모의고사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교가 나서서 별도의 사설 모의고사를 단체로 구입하게 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들여 시험을 치르는 것은 사교육을 부추기는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교육 당국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단위학교 자율 시행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규 수업 및 방과후 실시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설 모의고사 없이도 교육청과 평가원 모의고사만을 통해 충분히 수능 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공교육 모의고사 문항 출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1. 5. 13.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신소영(02-797-4044/내선번호 510)